

제138호(2016. 12. 30.)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1. 한·중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1
2.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7
3. 요약 및 시사점	14

감 수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061-820-2173	jkpark@krei.re.kr
내용 문의	한석호 연구위원	061-820-2279	shohan@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한·중 FTA 이행 2년차('16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 감소했고, 對중국 수출액은 3.1% 증가
 - 이행 2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곡물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 감소한 44.6억 달러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곡물, 과일·채소와 축산물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1% 증가한 11.1억 달러
 -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58.7%이고,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9.0%로 낮은 수준
- 한·중 FTA 협상결과, 농축산물 중 초민감품목 대부분(93%)이 양허 제외됨으로써, FTA 이행 2년차 관세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지리적 근접성,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습관의 유사성 등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한편,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및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5.1% 증가했고, 對베트남 수출액도 17.8% 증가
 -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과일·채소, 축산물 수입 증가로 '14년도 수입액(9.3억 달러)을 다소 상회하는 9.5억 달러
 -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모든 부류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7.8% 증가한 3.9억 달러
 -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5.6%이고, 對베트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0.0%로 낮은 수준임.
- 베트남이 농축산물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민감품목 수입 대응과 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병행할 필요
 - 당근(신선)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과일·채소를 비롯한 신선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및 FTA 활용률 제고로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확대 노력 필요

한·중 FTA 이행 2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소폭($\Delta 1.5\%$) 감소

1. 한·중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¹⁾

1.1.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한·중 FTA 이행 2년차²⁾(’16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4.6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³⁾ 대비 1.5% 감소,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입액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0.3%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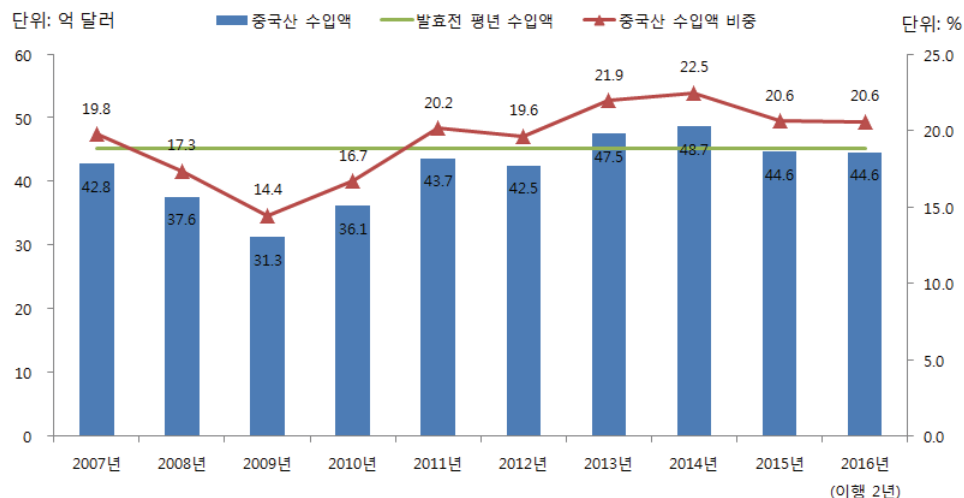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47.5(’13년) → 48.7(’14년) → 44.6(’15년) → 44.6(’16년, 이행 2년차)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

21.9(’13년) → 22.5(’14년) → 20.6(’15년) → 20.6(’16년, 이행 2년차)

그림 1.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 본 장의 농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교역통계는 2,875개 HSK코드를 대상으로 각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집계하였음. 이행 2년차의 경우 2016년 12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2)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이행 1년차는 '15년 12월 20~31일, 이행 2년차는 '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임.
- 3) FTA 발효 전 평년은 '11~'15년까지 5개년의 농축산물 수입액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이며, 한·중 FTA 이행기간인 '15년 12월 20~31일 기간이 포함됨.

중국산 곡물, 임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 가공식품, 과일·채소와 축산물은 증가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과 임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 과일·채소와 축산물은 증가

○ 곡물 수입액은 쌀, 참깨, 대두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5.8% 감소, 전년('15년) 대비 5.1% 감소

– 주요 수입 감소⁴⁾ 품목은 쌀(△17.6%), 전분박(△39.9%), 땅콩(△6.1%), 참깨(△38.6%), 대두(△34.1%) 등임.

※ 쌀 수입량(천 톤): 329('13년) → 204('14년) → 185('15년) → 196('16년)

※ 전분박 수입량(천 톤): 862('13년) → 570('14년) → 654('15년) → 748('16년)

– 다만, 팥(10.3%)과 기타채유종실(42.1%) 등의 수입액은 증가

※ 팥과 기타채유종실의 수입량은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반면, 수입단가는 각각 174.2%와 19.6% 상승하여 수입액이 증가

○ 과일·채소류 수입액은 기타채소, 마늘, 김치, 기타버섯, 기타과실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0.9% 증가, 전년 대비 2.8%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채소(37.7%), 김치(4.8%), 마늘(107.1%), 양파(18.0%), 기타버섯(171.1%), 채소종자(6.8%), 토마토⁵⁾(3.8%), 기타과실(7.3%) 등임.

※ 마늘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평년 대비 19.6% 증가했으나, 수입단가가 동기간 92.5% 상승하여 수입액 급증

※ 기타버섯 수입량은 평년 대비 143.5% 증가했고, 수입단가가 동기간 41.1% 상승하여 수입액 급증

※ 김치 수입량⁶⁾(천 톤): 220('13년) → 213('14년) → 224('15년) → 249('16년)

–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고추(△6.2%), 당근(△2.2%), 파(△5.8%), 가공사과(△19.0%) 등임.

○ 축산물 수입액은 기타동물성유지, 펩톤, 닭고기⁷⁾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9.5% 증가한 반면, 전년 대비 2.4%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닭고기(34.8%), 기타동물성유지(391.7%), 펩톤(13.7%), 젤라틴(22.2%), 소원피(228.8%) 등임.

※ 기타동물성유지 수입량(천 톤): 2.4('13년) → 4.1('14년) → 3.7('15년) → 24.1('16년)

※ 닭고기 수입량(천 톤): 2.5('13년) → 2.4('14년) → 3.1('15년) → 3.5('16년)

–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기타양모·섬모수(△11.4%), 녹용(△46.7%), 가죽(△56.2%) 등임.

4) 이하 감소 혹은 증가 품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기준으로 구분함.

5) 토마토는 신선 토마토를 제외한 페이스트(HSK:2002901000), 케첩(HSK:2103201000), 토마토 소스(HSK:2103202000) 등의 형태로 수입됨.

6) 김치(HSK:2005991000)의 기준관세율은 20%에서 한·중 FTA 협정으로 1% 감축되어 '16년에는 19.8%임.

7) 닭고기는 주로 밀폐용기의 것(HSK:1602321090)과 기타조제저장(HSK:1602329000) 등의 형태로 수입됨.

이행 2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3.1% 증가

표 1. 중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A)					발효 후	증감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B)	'16년 (이행 2년) (C)	발효 전 평년 대비 (C/A)	'15년 대비 (C/B)
전체 합계	4,366	4,251	4,750	4,867	4,464	4,458	-1.5	-0.1
농산물	2,486	2,374	2,751	2,661	2,442	2,540	0.4	4.0
- 곡물	861	762	1,093	1,010	686	651	-25.8	-5.1
- 과일·채소	732	691	692	637	760	782	10.9	2.8
- 가공식품	893	921	965	1,014	996	1,107	15.2	11.1
축산물	178	163	171	189	192	196	9.5	2.4
임산물	1,702	1,714	1,828	2,018	1,830	1,722	-3.8	-5.9

주 1) 발효 전 평년은 직전 5개년('11~'15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2016년 12월 수입액은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활용함.

3)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는 차이가 있음.

4)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2.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 동향

□ 한·중 FTA 이행 2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1%, 전년('15년) 대비 2.8% 증가

- 우리나라의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1년부터 정체국면을 보이다가 한·중 FTA 발효 2년차에 소폭 증가하여 11.1억 달러 기록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10.9('13년) → 10.8('14년) → 10.8('15년) → 11.1('16년, 이행 2년)

-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FTA 발효를 계기로 소폭 (1.0%p) 상승하여 이행 2년차에는 31.5%를 기록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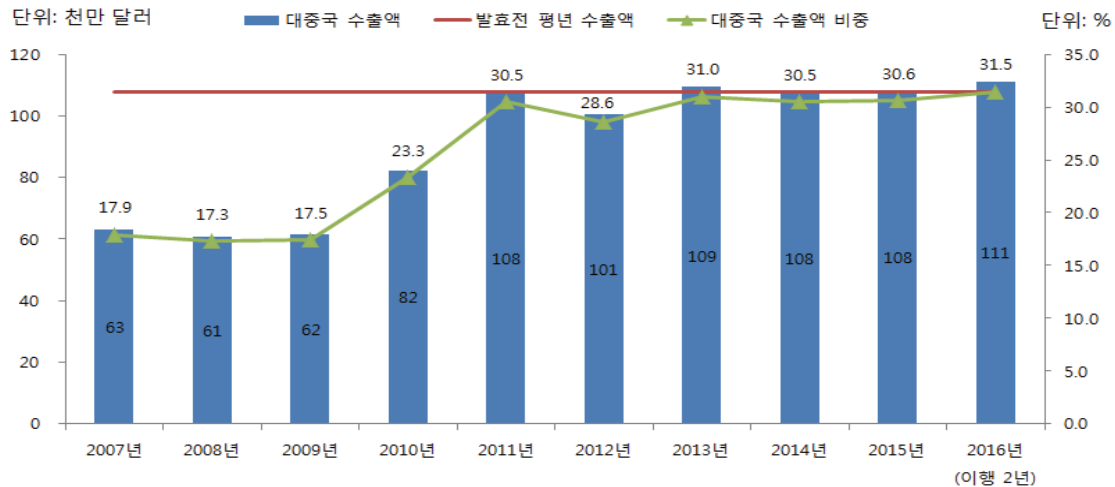
31.0('13년) → 30.5('14년) → 30.6('15년) → 31.5('16년, 이행 2년)

-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조제분유(71.4%), 라면(102.6%), 기타음료(29.0%), 생우유 (70.9%), 과실혼합물(1,125%) 등의 가공식품으로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



對중국 곡물, 과일·채소와 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 가공식품과 임산물은 감소

그림 2.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과일·채소와 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한 반면, 가공식품과 임산물은 감소

- 가공식품 수출액은 주요 수출품인 혼합조제식료품, 자당, 홍삼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5% 감소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라면(102.6%), 비스킷(40.2%), 기타음료(29.0%), 맥주(142.0%), 기타소스제품(60.9%), 기타설탕과자(173.8%)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 혼합조제식료품(△28.9%), 자당(△22.6%), 기타베이커리제품(△17.6%), 커피조제품(△27.9%), 홍삼(△53.9%) 등임.
- 과일·채소의 경우 단일과실조제품, 채소종자, 포도, 토마토, 김치 등의 수출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83.5%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단일과실조제품(59.4%), 과실혼합물(1,125%), 가공유자(10.1%), 기타과실(281.1%), 채소종자(76.7%), 토마토(30.5%), 김치(848.8%) 등임.
 - ※ 포도(신선)⁸⁾ 수출량(톤): 47('15년) → 36('16년)
 - ※ 김치 수출량(톤): 3('14년) → 25('15년) → 104('16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난초(△42.7%), 기타채소(△13.6%) 등임.

8) (신선)포도(HSK:0806100000)는 '15년부터 중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함.

이행 2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58.7%이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9.0%

- 축산물 수출액(유제품 포함)은 조제분유, 생우유, 닭고기⁹⁾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3.1%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조제분유(71.4%), 생우유(70.9%), 축산 유아용조제식료품(29.6%), 쇠고기(46.4%), 돼지고기(52.9%), 치즈(178.1%), 닭고기(3,682%)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기타양모·조모수(△1.5%), 가죽(△48.8%), 소원피(△10.0%), 소시지(△33.7%), 연유(△43.9%) 등임.

표 2. 농축산물 부류별 對중국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A)					발효 후	증감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B)	'16년 (이행 2년) (C)	발효 전 평년 대비 (C/A)	'15년 대비 (C/B)
전체 합계	1,076	1,007	1,094	1,077	1,080	1,111	3.1	2.8
농산물	845	755	821	798	782	830	3.8	6.2
- 곡물	4	3	3	5	6	8	92.8	25.4
- 과일·채소	63	63	75	79	105	133	83.5	26.8
- 가공식품	779	689	744	714	671	690	-3.5	2.8
축산물	129	130	145	172	197	184	23.1	-6.6
임산물	102	122	127	107	102	97	-12.4	-5.1

주 1) 발효 전 평년은 직전 5개년('11~'15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2016년 12월 수출액은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활용함.

3)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는 차이가 있음.

4)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3. 농축산물 한·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

□ 이행 2년차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58.7%

- '16년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¹⁰⁾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19.0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11.2억 달러임.
 - 수입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70% 이상인 품목은 고사리(84.9%), 혼합조제식료품(81.0%), 팔(80.4%), 들깨(77.3%), 조(70.2%)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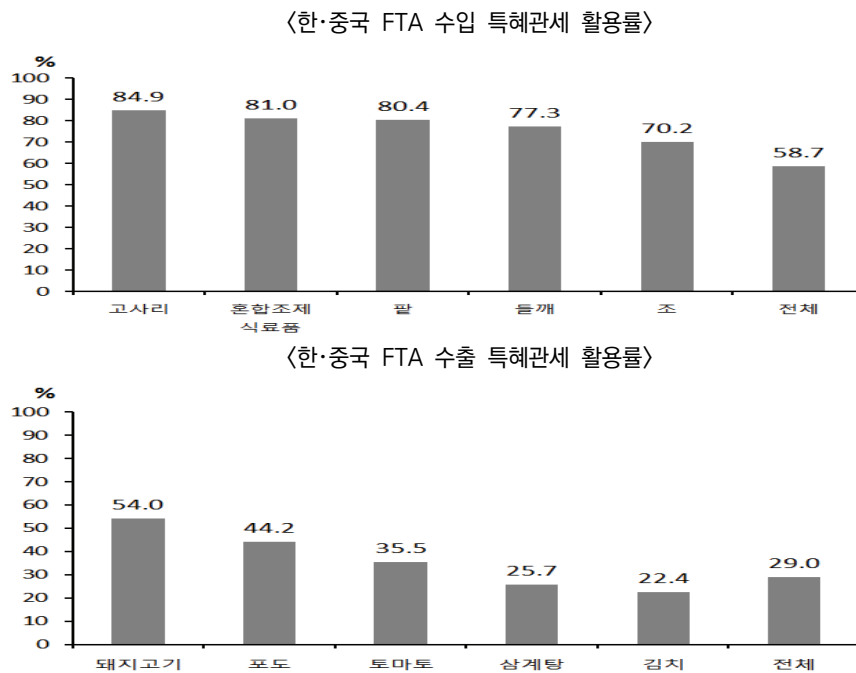
9) 닭고기 수출은 주로 삼계탕, 밀폐용기의 것(HSK:1602321090), 기타조제저장(HSK:1602329000) 상태로 수출됨.

10)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출입액은 '16년 1월~11월까지의 집계임.

□ 이행 2년차 對중국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9.0%

- '16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0.2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2.9억 달러임.
 - 수출규모가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20% 이상인 품목은 돼지고기(54.0%), 포도(44.2%), 토마토(35.5%), 삼계탕(25.7%), 김치(22.4%) 등임.
- 삼계탕¹¹⁾은 민관협력을 통한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조건 합의로 '16년 6월부터 정식 수출되고 있음.
 - '16년 11월 농식품부와 관세청의 축산물 FTA 활용 분야 MOU체결로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¹²⁾를 실시하는 등 FTA 수출 특혜관세(12.0%)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준비 중임.
 - ※ 對중국 삼계탕 수출량(톤): 179.0('16년 6~11월)
- 김치¹³⁾는 정부의 다년간의 노력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김치 수입위생기준이 개정 적용되어 2015년 12월부터 수출이 가능해짐.
 - 양허유형은 '20'으로 20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16년 기준 22.5%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림 3. 2016년 주요 농축산물 한·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



주 1)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허 대상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2)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1) 삼계탕과 관련된 HSK코드는 1602321010임.

12)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제도로써, 기존 축산물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함.

13) 김치와 관련된 HSK코드는 2005991000임.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년 대비 9.2% 증가하여 '14년도 수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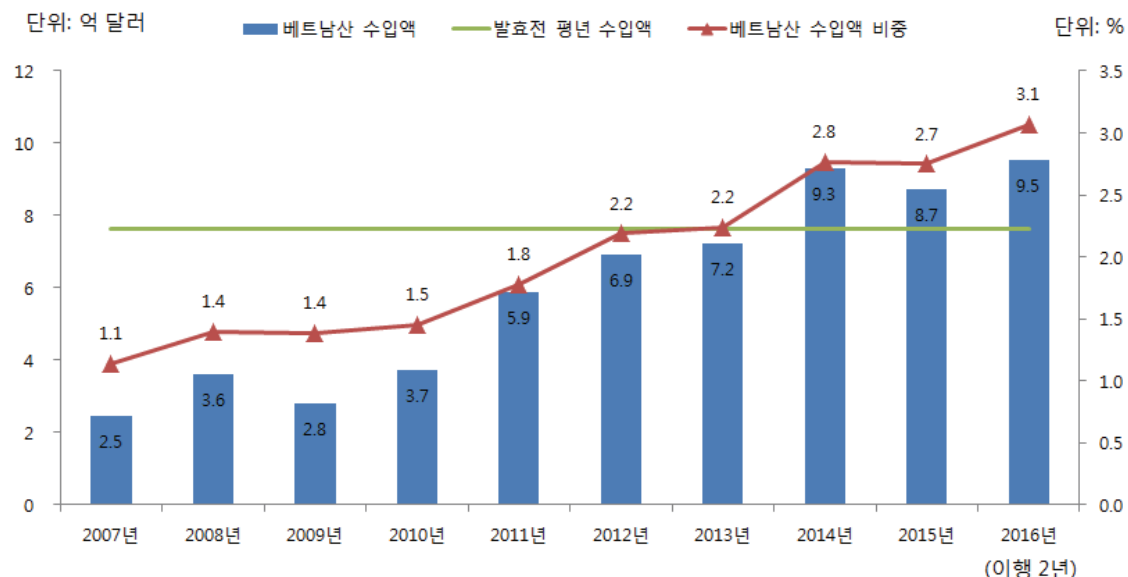
2.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2.1.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16년)¹⁴⁾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5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¹⁵⁾ 대비 25.1% 증가, 전년 대비 9.2%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입액 중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0.7%p 상승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7.2('13년) → 9.3('14년) → 8.7('15년) → 9.5('16년, 이행 2년차)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
2.2('13년) → 2.8('14년) → 2.7('15년) → 3.1('16년, 이행 2년차)

그림 4.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4)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이행 1년차는 '15년 12월 20~31일, 이행 2년차는 '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임.

15) FTA 발효 전 평년은 '11~'15년까지 5개년의 농축산물 수입액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이며, 한·베트남 FTA 이행기간인 '15년 12월 20~31일 기간이 포함됨.



베트남산 곡물, 가공식품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 과일·채소, 축산물과 임산물 크게 증가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가공식품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과일·채소, 축산물과 임산물은 증가

- 곡물 수입액은 타피오카, 쌀 등 주요 곡물의 수입량 감소 및 수입단가 하락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4.8%, 전년('15년) 대비 11.1% 감소
 -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타피오카(Δ 38.5%), 쌀(Δ 71.3%) 등임.
 - ※ 타피오카 수입량(천 톤): 217.4('13년) → 207.4('14년) → 75.2('15년) → 95.0('16년)
 - ※ 쌀 수입량(천 톤): 0.9('13년) → 47.7('14년) → 41.0('15년) → 10.2('16년)
 - ※ 베트남산 쌀(장립종)의 수입량은 '1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이행 2년차 1만 톤으로 감소함.
- 과일·채소류 수입액은 기타과실, 캐슈넛, 오이, 당근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30.5% 증가, 전년 대비 25.4%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과실(187.0%), 캐슈넛(543.7%), 망고(1,416%), 바나나(772.6%), 고추(24.8%), 오이(153.5%), 당근(285.9%) 등임.
 - ※ 기타과실, 망고, 바나나는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로 수입액은 증가
 - ※ 베트남산 기타과실 수입량(천 톤): 9.0('13년) → 16.3('14년) → 24.6('15년) → 32.8('16년)
 - ※ 베트남산 캐슈넛 수입량(천 톤): 7.2('13년) → 3.1('14년) → 14.7('15년) → 51.6('16년)
 - ※ 이행 2년차('16년) 베트남산 당근 수입량은 5.8천 톤으로 '14년 이후 급증함.
 - ※ 베트남산 당근 수입량(천 톤): 0.1('13년) → 4.7('14년) → 4.6('15년) → 5.8('16년)
- 축산물 수입액은 기타 양모·조수모, 젤라틴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66.7% 증가한 반면, 전년('15년) 대비 4.7% 감소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 양모·조수모(88.2%), 가죽(2.2%), 젤라틴(593.9%) 등임.
 -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기타동물성유지(Δ 16.9%), 소원피(Δ 32.4%), 뱀원피(Δ 7.7%), 꿀(Δ 15.7%) 등임.
 - ※ 이행 2년차 꿀 수입액은 8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7% 감소했지만, '15년 대비 50.0% 증가
 - ※ 꿀 수입량(톤): 7.2('13년) → 39.0('14년) → 19.5('15년) → 33.7('16년)

이행 2년차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7.8% 증가

표 3. 베트남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A)					발효 후	증감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B)	'16년 (이행 2년) (C)	발효 전 평년 대비 (C/A)	'15년 대비 (C/B)
전체 합계	586	693	722	930	874	954	25.1	9.2
농산물	375	451	397	460	387	392	-4.9	1.1
- 곡물	23	73	65	85	45	40	-34.8	-11.1
- 과일·채소	31	42	54	90	114	143	130.5	25.4
- 가공식품	322	336	278	284	229	209	-29.1	-8.6
축산물	6	7	11	14	19	18	66.7	-4.7
임산물	205	235	313	456	468	545	62.7	16.5

주 1) 발효 전 평년값은 직전 5개년 중('11~'15년)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2016년 12월 수입액은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활용함.

3)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는 차이가 있음.

4)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2.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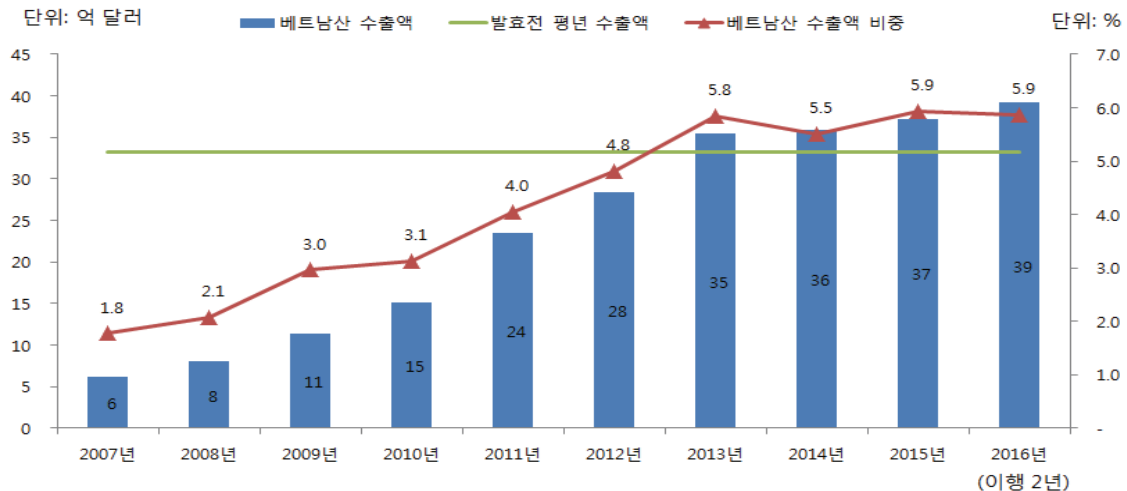
□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7.8% 증가했지만, '13년부터 수출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

-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전체 수출액 중 對베트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전년('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3.5('13년) → 3.6('14년) → 3.7('15년) → 3.9('16년, 이행 2년)
 -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
5.8('13년) → 5.5('14년) → 5.9('15년) → 5.9('16년, 이행 2년)
 -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권련(33.7%), 혼합조제식료품(57.5%), 기타사료용조제품(58.4%), 과당(76.7%) 등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對베트남 가공식품, 곡물, 과일·채소와 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모두 증가

그림 5.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부류별로 농산물, 축산물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한·베트남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임산물 수출액은 감소

- 가공식품 수출액은 주요 수출품인 권련, 혼합조제식료품, 기타사료용조제품, 과당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44.8%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권련(33.7%), 혼합조제식료품(57.5%), 기타사료용조제품(58.4%), 과당(76.7%), 기타음료(352.5%), 자당(155.8%), 라면(109.6%)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커피조제품(△17.8%), 기타베이커리제품(△39.9%), 쇼트닝(△15.3%), 비스킷(△41.9%), 인스턴트면(△42.5%) 등임.
 - 곡물 수출액은 주요 수출품인 대두박, 감자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84.6%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대두박(165.9%), 땅콩(4,141%), 감자(141.4%), 들깨(3,147%), 쌀(1,489%)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옥수수전분(△15.3%), 참깨(△43.5%), 밀(△11.1%) 등임.
- ※ 對베트남 대두박 수출량(천 톤): 1.9('13년) → 3.0('14년) → 7.8('15년) → 11.4('16년)
- 과일·채소는 단일과실제조품, 기타과실, 배, 포도, 딸기¹⁶⁾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79.2% 증가

16) 배, 포도, 딸기는 주로 신선상태로 수출되며 관련 HSK 코드는 각각 0808300000, 0806100000, 0810100000임.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단일과실조제품(331.8%), 기타과실(586.0%), 배(619.4%), 포도(535.6%), 사과(192.4%), 채소종자(41.4%), 딸기(2,858%)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팽이버섯(△54.6%)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수출량(△57.0%)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출액 감소를 주도함.
- 축산물 수출액은 가축, 양장¹⁷⁾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0.4% 증가하였으나, 닭고기의 수출 감소로 전년('15년) 대비 8.7% 감소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가축(17.8%), 양장(1,039%) 젤라틴(4.2%), 오리고기(9.2%), 기타동물성유지(36.2%), 쇠고기(292.8%), 돼지고기(926.0%) 등임.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소원피(△32.2%), 기타가금육(△54.9%), 뱀원피(△86.1%) 등임.
 - ※ 이행 2년차 닭고기¹⁸⁾ 수출액은 2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0.6% 증가했으나, 수출량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28.0% 감소
 - ※ 쇠고기¹⁹⁾ 수출액은 1.5백만 달러로 수출량 증가(73.7%) 및 수출단가 상승(126.1%)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92.8% 증가
 - ※ 돼지고기²⁰⁾ 수출액은 수출량 증가(2,487%)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926.0% 증가

표 4. 베트남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A)					발효 후	증감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B)	'16년 (이행 2년) (C)	발효 전 평년 대비 (C/A)	'15년 대비 (C/B)
전체 합계	235	284	354	358	372	391	17.8	5.3
농산물	136	169	175	189	242	264	48.1	8.8
- 곡물	2	8	5	8	13	13	84.6	1.1
- 과일·채소	7	7	9	10	10	15	79.2	48.0
- 가공식품	127	155	162	172	219	236	44.8	7.4
축산물	44	52	61	69	80	73	20.4	-8.7
임산물	55	63	118	100	50	55	-24.5	10.5

주 1) 발효 전 평년값은 직전 5개년('11~'15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2016년 12월 수출액은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활용함.

3)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는 차이가 있음.

4)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7) 양장은 동물의 위(HSK: 0504003000)을 가리킴.

18) 닭고기는 주로 냉동으로 미절단(HSK: 0207129000), 닭다리(HSK: 0207141010), 닭날개(HSK: 0207141030) 상태로 수출됨.

19) 쇠고기는 주로 냉동(HSK: 0202201000, 0202209000)과 조제(HSK: 1602509000) 상태로 수출됨.

20) 돼지고기는 주로 냉동(HSK: 0203299000)과 조제(HSK: 1602491000, 1602499000) 상태로 수출됨.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5.6%이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0.0%

2.3. 농축산물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 활용률²¹⁾

□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9.1%p 증가한 85.6%

○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7.0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6.0억 달러임.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6.5('15년) → 85.6('16년)

– 수입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오이(100.0%), 당근(100.0%), 밀가루(100.0%), 캐슈넛(100.0%), 커피(99.7%) 등임.

□ 이행 2년차 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대비 6.0%p 증가한 30.0%

○ 2016년 우리나라의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3.6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1.1억 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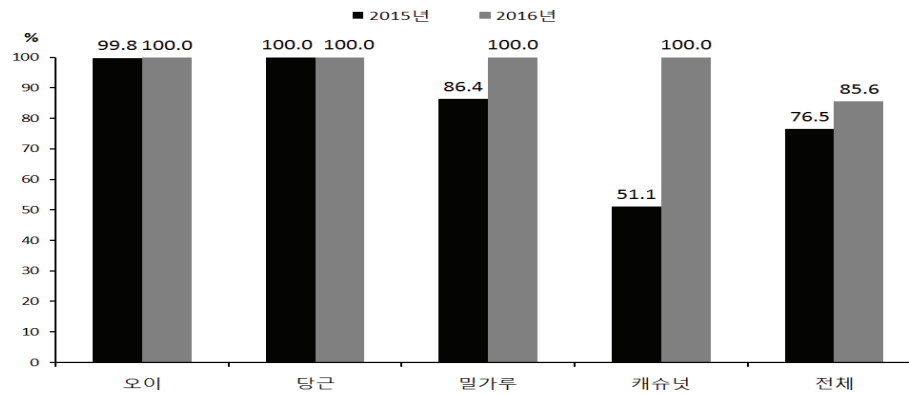
–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24.0('15년) → 30.0('16년)

– 수출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옥수수전분(100.0%), 대두박(99.6%), 당류(94.9%)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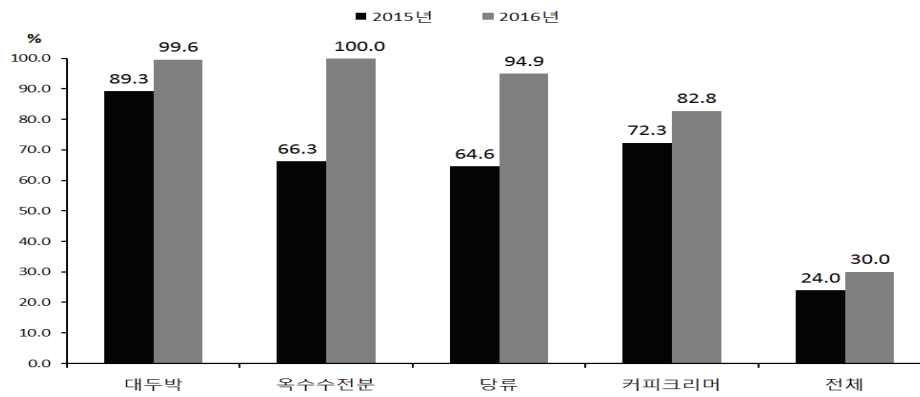
21)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출입액은 '16년 1월~11월까지의 합계이며, 2015년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ASEAN FTA 기준임.

그림 6. 2016년 주요 농축산물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 활용률

〈한·베트남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한·베트남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주 1)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허 대상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2)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요약 및 시사점

□ 한·중 FTA 협상결과, 농축산물 중 초민감품목 대부분(93%)이 양허 제외됨으로써, FTA 이행 2년차 관세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 한·중 FTA 이행 2년차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고, 농축산물 총수입액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6%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단, FTA 이행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지리적 근접성,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습관의 유사성 등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11년부터 정체국면에 있던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이 한·중 FTA 이행 2년차를 맞아 증가추세로 전환

- 이행 2년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1%,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고, 포도, 삼계탕, 김치 등의 신규 품목이 수출 증가에 일조함.
- 그러나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9.0%의 낮은 수준이며, 이는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및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한·베트남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의 자유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였으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양허내용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년 대비 9.2% 증가함으로써 '14년도 수준을 회복함.
- 단, 당근(신선) 등 일부 과일·채소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에 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베트남이 농축산물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FTA 이행 2년차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이 5.3% 증가함으로써 수출 증가세를 이어감.

- 비록 '13년부터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배, 포도, 딸기 등 과일·채소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
- 향후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선 농산물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현재 30% 수준인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016년

-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운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KREI 농정포커스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12. 30.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쇠 (주)한디자이크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8-89-6013-943-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